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20년 5월 제 **110**호

<http://www.josephclinic.org> | [www.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ww.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daum.net

## “야단치고 부대끼다 보니 사랑하게 됐어요” 본원 간호팀, 의료사각지대 최일선에서 ‘가족같은 애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이상 단  
축 진료를 하다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한 5월 6일 오후 7시, 줄을 서

서 대기하다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윤해용 씨(60)는 “그동안 아픈 목이 도져서 한참 고생했었는데, 한 달여 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 치료 받으니 한결 나아졌다”며 기뻐했다.

‘코로나 사태’가 차츰 안정세를 찾으면서 본원도 낮 진료와 밤 진료를 모두 실시하기로 하고, 발걸음이 뜸했던 봉사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특히 간호팀은 무료 진

신완식 의원원장(왼쪽)과 김정순 간호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영주 간호사(맨 오른쪽)가 환자 진료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본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했다.

료봉사를 나오는 각 진료과 의료진 모두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일일이 진료 재개 소식을 전했다.

김정순 본원 간호팀장은 “봉사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어서 흔쾌히 진료 봉사를 오겠다는 답을 주셨다”고 말했다. 혹시라도 진료하러 와서, 혹은 오가는 도중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하면 본인의 건강은 물론 운영하는 병의원에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선뜻



110호  
주요  
소식



1

본원 간호팀 소개



5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7

쪽방촌 향기



8

병원 소식



12

봉사자 코너



본원의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는 낮 진료와 밤 진료를 합쳐 100명 내외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80% 이상이고, 연령층은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젊은 층 환자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들이 많다.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이 승낙해 주었다는 것.

김 팀장은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그동안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는 단축 진료기간에 전화를 해서 약 처방에 대해 조언을 주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에 봉직하는 교수나 의사들은 소속 병원 측의 코로나 대응 방침에 따라 외부 지원근무를 제한하기도 해, 일부 진료과는 대체 의료진을 알아보고 있기도 하다.

### 쪽방촌 진료의 최일선에서

본원 간호팀은 이곳 쪽방촌 사람들과 노숙인, 외국인 난민이나 불법체류 노동자 등을 진료하는 최일선에서 이들을 보살핀다. 정상 근무 시 하루 평균 진료환자 수는 낮 진료와 밤 진료를 합쳐 100명 내외. 이중 대부분이 ‘단골 환자’이고, 처음 내원하는 환자는 세 명 정도.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80% 이상이며 연령층은 30대에서 70대까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본원 신완식 의무원장은 “쪽방촌 사람들은 장노년층이 많은 데 비해 외국인 난민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들 중에는 젊은 층이 많다”고 말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본다는 본원의 취지에 맞게 국적 가리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원에 오는 외국인 환자들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일부 아프리카와 중동인도 있다. 언어가 달라 간혹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픈 곳을 알아내 진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간호팀은 환자가 내원해 원무팀에 접수를 하면 환자의 의무기록을 가져다 해당 진료과에서 순서 대로 진료를 받

도록 하고, 담당의사가 임상병리 검사나 X선 검사 등을 의뢰하면 검사 안내를 한 뒤 진료 결과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도록 한다.

검사 결과 간혹 신속하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환자로 판단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가 올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사업팀과 협조해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등 시립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한다.

“응급환자는 대체로 한 달에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간 경화증이 심하게 악화돼 간에 복수가 찬 환자, 검사 결과 결핵에 감염된 환자, 외상으로 크게 다친 환자 등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의무원장님이나 봉사오신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를 한 뒤 큰 병원으로 전원시킵니다.”

그러나 일부 물혹이나 심하지 않은 외상, 수술이 필요한 다지증 환자 등은 대학교수 출신 본원 외과봉사의가 직접 집도해서 치료를 하기도 한다.

### 20여개 진료과 보조에 환자 챙기기도 큰 일

본원 간호팀은 ‘일반 간호 업무’에 비해 챙겨야 할 일이 많다. 먼저 낮 진료와 밤 진료를 합쳐 진료과가 20여 개로 웬만한 종합병원 못지 않게 다양한 진료를 한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제외하고 내과와 외과,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등을 비롯해 한의학과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등 요일별 진료 스케줄에 따라 모든 진료 업무를 지원

본원은 전체 진료과가 20여 개로 웬만한 종합병원 못지 않다. 정규 간호팀원 두 명이 환자를 챙기고 여러 과의 진료 지원을 해야 하므로 늘 신경을 쓰고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아래 사진은 신체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카이로프랙틱 장비.







본원 간호팀에도 간호사 봉사자 여섯 명과 일반 봉사자 여섯 명이 간호 업무를 돕고 있다. 본원 의료봉사진은 '어려운 환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만큼, 투철한 봉사정신과 애정을 가진 장기 봉사자가 많은 편이다.'

해야 한다.

진료과가 많다 보니 의료장비도 적지 않다. X선 촬영장비를 비롯해 심장과 복부, 간 등의 장기와 근골격계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초음파 장비와 위내시경, 이비인후과의 검사 장비, 안과의 안압측정기와 안저검사 장비, 피부과용 CO<sup>2</sup> 레이저, 물리치료 장비 등이 구비돼 있다. 이 가운데 X선 장비는 영상의학실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나머지 장비들은 필요에 따라 간호팀이 전문의를 보조해 검사 혹은 시술을 돕는다.

간호팀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자와의 관계다. 본원을 찾는 환자들 상당 수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있기 때문이다.

“여러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분들이 많지요.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고아로 자라면서 사회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아온 분, 사업 실패로 가정까지 깨지면서 술로 울분을 달래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전락한 분,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강해 간혹 진료 대기가 조금 길어지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의사선생님의 처방이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이런 저런 기구한 사정을 아는 김 팀장은 “늘 가족같은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보살핌을 펴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 병원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단골 환자 중에는 약이 필요치 않은데도 갈 데가 없거나, 외로워서 말을 하고 싶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러 오기도 하

는데, 그럴 때는 틈틈이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 마음이 풀려서 돌아갑니다.”

### ‘애달픈 삶의 파노라마’를 지켜보며

김 팀장과 함께 본원 정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주 간호사는 “5년 전 처음 요셉의원에 출근했을 때는 환자들이 통명스럽게 뭐라고 하면 무서워서 숨

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마음에는 진솔함과 따스함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본원에는 가끔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이들도 찾아온다. 50대 초반의 김 모씨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김 씨는 2018년 5월 쯤 교도소에서 출감한 며칠 뒤 가까머리를 하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본원에 내원했다. 눈에는 살기가 돌아 주위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약을 타가지고 가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만 다시 교도소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본원 간호팀에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서 그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은 김 팀장이 처음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6개월을 복역하고 출감한 그는 현재 술도 끊은 ‘착실한 단골 환자’가 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원을 찾고 있다.

1997년부터 본원 간호팀에서 봉사를 하다 2012년 8월부터 정식 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김 팀장은 20여 년을 이곳에서 일하다 보니 ‘애달픈 삶의 파노라마’를 술하게 지



커볼 수 있었다.

4년 전 간경화로 작고한 50대 후반의 김모씨는 30대 초에 가족과 헤어진 뒤 술로 울분을 달래며 쪽방촌을 전전했다. 찜통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고시원에 병들어 누워있는 그를 딱하게 여긴 김 팀장은 가끔 김 씨를 방문해 약도 갖다 주고 생활용품을 사다주기도 했다.

“병이 말기에 접어들어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뒤 가족이라도

찾아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마산의 한 병원에 조카가 간호사로 근무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전화를 하게 됐고, 이튿날 연락이 닿았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부산에 사는 형과 누나가 서둘러 우리 병원을 찾아왔더군요. 가족과 함께 호스피스 병원으로 돌아간 환자 김씨는 이튿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팀장은 “현관 앞에서 간호팀에 인사하고 가겠다고 기다리던 환자 김 씨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봉사정신 굳건한 장기 봉사자 많아

현재 진료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은 김정순 팀장과 김영주 간호사 등 두 명의 정규 직원 외에, 자원봉사 간호사 여섯 명과 일반 자원봉사자 여섯 명이 각각 자신의 봉사일에 맞춰 병원에 나와 진료를 거든다.

자원봉사의와 간호팀 봉사자의 특징은 장기 봉사자가 많은 점. 김 팀장은 “의료팀 봉사자들은 ‘어려운’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 진료를 하거나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굳은 봉사정신과 따스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사 오시는 의사분들 중에는 환자들을 자신이 운영하거나 재직하는 병원으로 조용히 불러 요셉의원에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진료를 해주시는 등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선행을 알리는 건 또 질색들을 하세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진료일지를 다르게 정하고 진료실을 함께 쓰고 있다. 3층 이비인후과-안과 진료실 모습.



본원 환자 가운데 상당 수는 마음에 상처나 응어리가 있어 이들을 잘 보듬는 일도 간호팀의 중요한 과제다. 처방약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왼쪽)과 접수실 모습(오른쪽).



본원에서 5년 째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호팀 봉사를 하고 있는 허수빈 간호사(서울성모병원)는 병원 근무를 마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저녁 봉사를 나오고 있다. 허 간호사는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과 봉사자들을 보면 나는 좋은 환경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몇 번 얼굴을 마주했던 환자들은 먼저 안부도 묻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계속 나오게 되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허 간호사와 이름이 비슷한 허수민 봉사자는 TV에서 선우정식 초대원장의 다큐프로를 보고 요셉의원 봉사를 생각하다 2016년 가을부터 자원봉사팀에 합류했다. 환자들의 혈압과 체중을 재고 환자 기록부를 각 진료과로 가져가는 봉사를 하는 그는 “환자들이 힘들게 살아온 사연을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고 말하고, “봉사를 하면서 아직도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다.

환자들이 투정을 부릴 때는 큰소리도 내고, 풀이 죽은 환자를 보면 힘 내라고 격려도 하는 간호팀원들은 남이 볼 때는 ‘환자를 너무 막 대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약이 필요한 환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동안 병원에 오지 않으면 야단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팀장의 ‘항변’이다.

“오래 일하다 보니 많은 환자분들이 처한 사정도 자연히 알게 되고, 건강에 해로운 음주를 자주 하거나 역지를 부리는 환자들에게는 때로 큰 소리가 오가기도 하는데, 이곳 환자분들과의 좀 색다른 소통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 팀장은 “지난 번 코로나 때문에 휴원과 단축 근무를 할 때 정신과 약이 떨어져 잠을 못 자고 달려온 환자들을 보니 병원이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셉의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져 간호팀이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2020.03~2020.04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코로나19 사태



필리핀 현지통신

## 도울 곳은 많은데, 재화와 일손이 부족 빈민지역 어린이 급식과 식료품 지원에 전력 투구



지난 3월 15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루손(마닐라)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시민들은 집 밖에 나올 수 없으며, 식료품이나 의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한 명씩만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와 통행하도록 허용됐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강제 구금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한 달 정도의 격리 기간이 예상됐으나, 현재(5월 16일) 필리핀 내의 확진자 수는 1만2000여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 격리 기간은 계속 연장되는 상태다.

이런 정부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도시 빈민 계층이다. 필리핀은 인구의 약 20%가 빈민층(5인 가족 하루 6달러 미만)에 속하며, 그 중 70%가 도시 빈민 계층이다. 즉 이들의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런 이동 제한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입이 없어지고, 집안 식구들이 굶는 상황에 처해졌다. 정부는 빈민지역 가정에 8000페소씩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분배 중에 있으나, 혜택 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커 보인다.

### 서울대교구 까리따스도 후원금 보내와

필리핀 요셉의원이 속해 있는 칼로칸 교구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마닐라 교구의 도움을 받아 빈민층에게 슈퍼마켓 상품권을 나눠 주었다. 1000페소 상품권 약 10만 장을 각 본당에 할당해 빈민지역 가정에 분배했다. 또한 칼로칸 교구는 여러 지역에서 보내온 후원금으로 쌀과 식료품을 구입해 각 본당과 선교지역으로 보내 그 곳 빈민지역으로 다시 배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까리따스도

지난 주에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이곳 교구 빈민층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필리핀 요셉의원도 현재 의료사업은 잠시 보류하고, 어린이 급식과 식료품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 급식은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하루 220명분을 3개 지역에 나누어 배급한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엄마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배급을 받아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니만큼 본 클리닉에서도 좀 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가리따스 등에서 보내온 후원금으로 마련한 식료품을 필리핀 요셉의원 구내에서 배급하고 있다(사진 위). 배급품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한 채 기다리기를 하고 줄을 서 있는 필리핀 카톤 지역 빈민들.

### ‘오병이어’의 기적 상기하며 기도

식료품 지원은 지역 경찰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해 티켓을 나눠주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와서 식료품으로 교환해가도록 하는 방식을 쓴다. 우리 클리닉에서 마련한 식료품 세트는 5kg의 쌀과 함께 참치 캔과 라면 각각 두 개, 소세지 캔 한 개로 구성돼 있다. 더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쌀과 캔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식료품 교환 티켓을 집집마다 다 나눠주면 좋은데 집들이 미로처럼



장경근 원장신부(오른쪽)가 빈민 가정을 돌며 식료품 티켓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5월 중순 현재 10개 빈민마을에 식료품 세트를 3000개 정도 지원했다.

얹혀 있어서 놓치는 집들도 없지 않다. 티켓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못 받았으며 아쉬움을 토로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티켓 없이는 식료품을 주지도 못한다. 한번은 티켓 없이 식료품을 주었다가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있다.

현재 총 10개 마을에 식료품 세트를 300개씩 3000개 정도 지원하였고, 격리 기간 동안에는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재화와 일손이 한정되어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며 가끔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주님은 오천 명 앞에서 한 소년이 바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손에 들고 기도하셨다. 그 소년이 가졌던 마음으로 주님이 바치시는 그 기도에 동참해 본다.

그리고, 요셉의원을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분들께도 이번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청한다.

#### ✦ 2020년 3~4월 신규 후원회원 명단(총6명)

♥ 김주성 ♥ 김창희 ♥ 서재수 ♥ 오정석 ♥ 원지연 ♥ 이민성

#### ✦ 2020년 3~4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296명 ♥ 급식 8,030명

#### ✦ 개원 후 진료 및 급식통계 (2020년 4월 현재)

♥ 진료 80,625명 ♥ 급식 307,244명

####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ppt://philisclinic.org](http://phili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4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 꼭방촌 향기

# 사회적 약자 위해 법의 사전 예방적 역할 강화 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지식을 익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의원에도 법률 상담만이 아닌 생활법률 강좌 같은 일종의 사전 예방 교육이 보태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의원에서 법률상담 봉사자를 하고 있는 '함께 맞는 비' 팀장 양마루솔입니다. 그동안의 봉사를 통해 느꼈던 점과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의 주요 고민 등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 최하층 기층민을 위한 바람직한 법적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원에 들어오는 상담 신청은 주로 채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가 연체료가 부과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등 크고 작은 채무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의뢰한 분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자격유무 등을 먼저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요건이 엄격한 만큼, 상담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담을 거듭하면서 요셉의원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법적인 해결이 힘든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무액이 회생 및 파산신청 가능 액수를 훨씬 넘는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결국

### 양마루솔

'함께 맞는 비' 회장



본원 법률상담 봉사팀인 '함께 맞는 비' 회원들. 왼쪽에서 네 번째가 필자.

법을 통해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분들을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게 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보호막으로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게 되는 보루로 여겨진다고 생각했기에 그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법조

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며 법이 사후적인 도움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책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법의 중요성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지식을 익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의원에도 법률 상담만이 아닌 생활법률 강좌 같은 일종의 사전 예방 교육이 보태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개월 동안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더욱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요셉의원 소식

### 선우 경식 원장 12주기 추모행사 엄수



지난 4월 18일 선우 경식 초대원장 12주기를 맞아 본원 직원과 봉사자 및 외빈 20여 명은 경기도 양주 울대리 묘원을 찾아 연도를 올렸다.

본원 초대 원장인 선우 경식 박사의 12주기 추모행사가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본원 경당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묘소에서 병원 직원과 봉사자,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17일 오전 본원 3층 경당에서 원장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된 추모미사에는 본원 직원과 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선우 원장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고, 고인의 뜻을 이어가 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진료와 자활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미사 강론에서 조해봉 원장신부는 요셉의원을 통해 드러내셨던 주님의 은총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본원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자고 말했다.

조 원장신부는 “선우 원장이 무료 자선병원인 본원을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은 앞으

로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려고 진심되게 노력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원장신부는 이어 “때로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요셉의원 안에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했던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선우 원장님의 삶의 가치가 ‘채워 주심’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하고, “선우

원장님의 고귀한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겠지만, 각자의 모습으로 그 길에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원장신부를 비롯한 본원 직원과 봉사자 및 외빈 20여 명은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 울대리의 선우 원장 묘소를 찾아 함께 연도를 올렸다.

### 요셉의원 3실 1국 체제로 조직변경

본원은 설립 정신과 사명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및 향

후의 법인 정비를 위해 지난 4월 현재의 조직 구조와 직제, 업무분장을 조정,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의료사업, 사회사업, 행정, 기획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3실 1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신설된 ‘의료사업실’은 더욱 전문적인 병원



본원 조직 개편에 따라 4월 17일 해당 부서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운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진료 부서를 한데 묶어 의료 관련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또 현재의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사회복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반 사회사업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사업팀을 '사회사업실'로 확대, 개편했다. 사회사업실 아래에는 기존 사회사업팀 외에 재활지원팀을 신설해 환자 재활 프로그램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사무국을 '행정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동의 집', '요셉의 집' 관리 등을 포함한 행정관리 업무를 일원화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특히 기획실을 부활시켜 병원 운영의 중장기 계획, 조직 및 재규정 관리, 종합예산관리, 법인관리 등을 맡도록 함으로써 미래 병원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 치과 임창준 봉사의 6월10일까지 사진전

본원 치과의 목요일 낮 진료 때 구강외과 봉사로 활동하는 임창준 선생이 4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감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주

제로 서울시 연건동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로비에서 두 번째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문 초청 작품전이다.

전시작품들은 감성과 치유, 자연, 영성을 주제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작가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연하 사진평론가는 임 선생의 사진작품에 대해 "그의 글과 사진은 의사

이자 작가 그리고 지극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며, "오랫동안 타인의 건강을 돌보았던 그에게 사진은 창조적 삶과 종교적 영성을 위한 새로운 가치이자 미디어"라고 평했다.

본인을 '수술하는 치유 사진가'로 지칭하는 임 선생은 작가노트에서 '지난해 4월 프란치스코 성인의 흔적을 담은 첫 번째 개인전과 목상집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감성의 세계와 영성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치유와 영원한 미학의 길'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선생은 현재 예수 오상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약사 부부, 어려운 이웃 위해 약품 기증

경기도 안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성범-윤명숙 부부 약사가 5월 20일 본원에 위장약(스토린) 190박스(1박스에 30포)를 기증했다. 약품을 직접 차에 싣고 본원에 가져온 김성범 약사는 "평소 요셉의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약품을 후원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쪽방동네 주민과 노숙인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봉투 재활용 요청 편지

지난 4월 17일 한 후원자가 본원에서 후원회원들에게 보내는 영명축일 축하편지나 감사편지 등의 봉투를 재활용하라며 지금까지 받았던 편지봉투 18매를 보내왔다.

이 후원자는 동봉한 편지에서 "요즈음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가 빨리 진정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문구를 인용해 '제게 보낸 후원봉투를 재활용하는 것도 자연보



'수술하는 치유 사진가' 임창준 치과봉사의의 두 번째 개인전이 모교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호, 환경보호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원자는 “많은 활용 바란다”며, “개인별 주소를 출력해 붙여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

## 구세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마스크 후원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마스크가 주요 생필품으로 등장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등 품귀 현상까지 빚던 지난 4월 초, 구세군을 비롯해 여러 후원자들이 본원에 마스크를 후원했다.

마스크 기부자 중 한 명인 하마리아 씨는 동봉한 편지에서 “덴탈 마스크이지만 한의사 물품 사이트에서 파는 것이어서 질이 괜찮다”고 말하고, “저와 가족, 친구들도 잘 사용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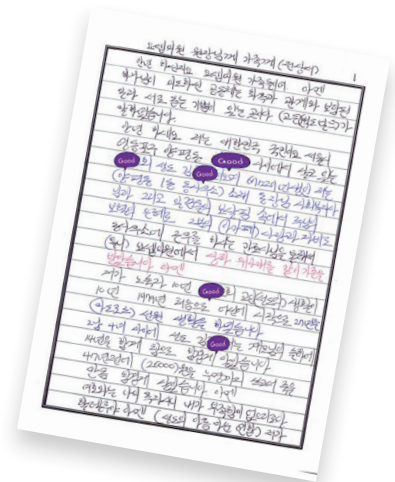
어서 조금 보내드리니 약소하지만 필요하신 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 치과 환자, 장문의 감사편지 전달

지난 4월 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살고 있는 김 모씨(53)가 본원 치과에서 틀니 치료를 받은 뒤 고마움을 표하는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김 씨는 어린 시절 게모 슬하에서 힘겹게 살다가 12세 때부터 27년 간 어선에서 일했고, 이어 상황이 어려워져 서울로 올라온

뒤 10년 간 노숙인 생활을 했다는 과거를 털어냈다. 그러나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도 10년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늘 여호와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양평동 주민센터의 후원과 본원 치과팀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늘 회개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 환자 스토리

###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이옥만 씨

#### “요셉의원 덕분에 모진 삶 이어갑니다”

노년에 병든 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 요셉의원을 찾는 노년층 환자들은 통상 서너 가지 병은 기본으로 달고 산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대사 증후군에 허리나 무릎, 어깨가 아픈 관절염, 그리고 많은 이가 알코올로 인한 술병 증상을 가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봉천동 낙성대에서 약을 타러 오는 이옥만 씨(66)는 간도 나쁜 데다 특히 폐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할 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대요.”

8년 전 건축 현장에서 톱날에 손가락을 다친 뒤 상심해서 술로 날을 지새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눈가가 까맣게

됐다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셉의원을 알려주었다.

“그때부터 요셉의원 단골이 됐습니다. 내과 선생님이 간이 많이 손상됐다고 약을 지어주어서 복용하다 2년 뒤에는 다시 대장포진에 걸려 또 5~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그 얼마 뒤 이번에는 X선 검사에서 결핵이 발견됐다. 다행히 초기라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약을 먹고 나왔다. 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한 탓인지 숨 쉬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방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밤새 바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숨이 막혀 제대로 걷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보라매병원에 갔더니 폐에 염증이 생겨 물이 찼대요. 옆구리에 호스를 끼워 물을 빼고, 열흘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퇴원한 뒤 요셉의원에서 호흡기 약을 포함해 여러 가지 약을 계속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요셉의원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남쪽이 고향인 이 씨도 어린 시절 불우







한 환경이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맡겨진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와 정미소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20대 초반 서울로 올라와 분식집에 취직했다.

“일을 배워서 분식집 주방장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반제품을 공급받는 체인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주방장이 필요 없어지더군요. 이리저리 일거리를 알아보다 다시 인테리어 목수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건물이나 주택의 마루도 깔고 칸막이도 만들고 하면서 일이 손에 익자 하루 일당을 16만원 정도 받게 되었다. 10년 정도 목수 일을 하면서 수입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던 중에 합판 가공을 하다 그만 톱날에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것. 다행히 나중에 상처는 회복됐으나 같이 일하던 팀장이 이 씨를 끼워주지 않았다.

“산재보험 처리를 해서 그랬는지 일 나오라고 불러주지를 않아서 찾김에 혼자 술 마시며 분을 삭이다 몸까지 망

가지게 됐죠.”

2년 뒤 돈이 떨어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구청에 찾아가다. 그러자 담당자가 이 씨의 얼굴을 보고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닌 것 같으며 주민센터 복지과를 찾아가라고 돌려보냈다. 이 씨는 “주민센터에서 건강이 좋아지면 일을 한다는 조건부로 기초 수급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낙성대 부근 주차장에 딸린 쪽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그는 아침과 점심은 집에서 해 먹고, 저녁은 성남 ‘안나의 집’에서 도시락을 배급받아 해결한다고 했다. 친구도 없어 누구와 대화를 나눌 일도 별로 없다보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최근 시간을 내 주차장에 모인 쓰레기들을 분리 정리해 놓자 말이 없던 집 여주인이 웃음 띤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라며 무뎠던 얼굴에 열은 미소를 머금었다.



## 후원의 손길

### ‘안타까운 사연’ 읽고 후원금 기부

“도움 필요한 사연 볼 때마다 작으나마 정성을 보냅니다”



지난 3월에 발행된 본원 소식지 109호에는 코로나 사태로 식당 허드렛일도 못해 고시원 월세가 밀린 김영희 씨(본명 강선희)의 사연이 실렸었다. 이 내용을 본 경기 의왕에 거주하는 후원자 김 바오로 씨가 지난 4월 3일 본원 사회사업팀에 전화를 걸어 ‘김영희 씨가 수급 신청을 했다는데 수급

자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그동안 생계에 보태도록 얼마간의 성금을 보내겠다’며 200만 원을 선뜻 보태주었다.

본원에서는 이 후원금을 강선희 씨에게 전달했고, 강 씨는 이 돈으로 5개월치 고시원 비를 지불한 뒤 일부는 휴대전화비를 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고시원 방세가 밀려 그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내기도 했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마워했다.

한편 가톨릭평화신문에서도 강 씨의 사연을 알고 5월 10일 자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난에 그의 인생역정을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부 후원과 단축 진료로 봉사를 오지 못했던 본원 현관 담당 고성원 봉사자가 마침 이 기사를 읽고 후원 대열에 동참했다.

고 봉사자는 “가톨릭평화신문의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난을 꼭 보는데, 아는 분이 후견인으로 나와 있으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보태서 내곤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본원 사회사업실 김순점 실장이 후견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흔쾌히 후원을 했다. 지난해에는 본원 원장신부가 수술이 필요한 필리핀 어린이의 후견인으로 나와 후원금을 보태기도 했다.

건물 보안요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고 봉사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다. 아침 7시에 퇴근한 뒤 한 두시간 잠깐 눈을 붙이고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본원에 봉사하러 달려오곤 한다. 함께 일하는 한 봉사자는 이런 그를 보고 “깊은 신심을 실제 행동으로 조용히 실천하는 모범 신앙인”이라고 귀띔했다.



## 봉사자 코너

# “영화 통해 ‘마음의 자활’을 준비합니다”

## 영화포럼 담당 이정규 선생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에 열리는 영화포럼에는 환자들을 포함해 봉사자와 후원자도 함께 참여한다. 진행자인 이정규 선생은 “처지가 달라도 한편의 영화를 같이 보며 서로 소통하고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원에서는 진료 이외에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의 정신적 자활을 돕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음악치료 교실을 비롯해 치유인문학 강의, 영화포럼 등이 그런 프로그램에 속한다.

이 가운데 영화포럼은 6년 째 이어오고 있는 영화를 통한 ‘마음 피정’의 하나로, 매월 둘째 수요일(오후 1시~4시)에 4층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다. 이 포럼을 진행하기 위해 멀리 제주에서 올라오는 이정규 선생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화포럼 가족들을 못 만나 아쉬웠다”며, “6월부터 다시 함께 영화를 보며 공감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 – 영화포럼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전에 요셉의원 원목수녀로 계시던 김 아벳다 수녀님이 영화 피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2013년 가을쯤 제가 진

행하는 전진상교육관 영화피정에 직접 참여해 보시고, 당시 이문주 원장신부님께 부탁해서 이듬해 영화포럼이란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화포럼 첫 번째 영화로는 ‘7번방의 선물’(이환경 감독)을 상영했다. 살인누명을 쓰고 흉악범이 모인 교도소에 들어간 지능이 좀 모자란 딸바보 주인공(류승룡 분)이 어린 딸에 대한 사랑을 통해 같은 방에 수감된 거친 범죄자들의 인간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삶을

바꾼다는 코미디 겸 휴먼드라마다. 이후 약 70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 ‘소통하며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 공유’

본원의 영화포럼은 영화를 비평하거나 작품성 등을 논하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다. 영화라는 장르로 압축돼 전해지는 여러 유형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참석자들이 소감을 나누며 공감하는 중에 일종의 치유 효과를 얻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취지 아래, 영화 감상에 앞서 먼저 이정규 선생이 그날의 주제에 맞춰 영화의 개요를 설명한다. 참석자들은 그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영화를 감상한 뒤 돌아가며 소감과 인상적인 장면 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선생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과 참석자들의 나눔을 바탕으로 그 날의 주제에 맞게 마무리 정리를 한다.



“영화포럼은 사실 마무리 시간을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공감된 주제와 나를 연결시키고, 또한 그것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로까지 확장해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작은 희망을 갖게 되는...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공허하기 때문에, 그 희망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자활이 아닐까요?”



2014년 1월 영화포럼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30~4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나 요즘에는 참석자가 10여 명 정도여서 가족같이 오붓한 분위기다. 사진은 영화포럼이 열리는 4층 작은 도서관 모습.

#### — 영화 포럼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랄까 의미를 얘기해 주신다면?

“한 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모든 참석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쪽방촌 주민이나 노숙인뿐 아니라 영화포럼 봉사자들과 후원자 분들도 오시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요.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영화를 보고 소감을 나누다 보면 관심과 바램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처지에서 살아도 우리는 소통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생은 영화포럼을 진행하기 위해 영화 한 편을 최소한 다섯 번, 많게는 십여 번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화 속의 대화와 장면이 던져주는 메시지, 작가와 감독의 의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분석하며 영화에 담긴 이야

기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한다.

#### — 이 선생님의 이런 노고를 생각하면 ‘만원 사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한 분이라도 오셔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겐 기쁜 일이지요. 요즘 참석자가 줄어든 것은 열정적으로 제가 더 잘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볼거리가 많이 확산된 점도 참석자 감소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6년 전인 2014년 1월 영화포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4층 작은 도서관이 딱 차서 보조의자를 갖다 놓을 정도로 붐볐다. 분위기도 엄격해서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들고나는 사람이 없었고, 휴대전화 전 원도 끄도록 했다. 이렇게 30~40명이 북적이던 때와 비교하면 10여 명이 참석하는 지금은 가족같은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할까.

#### — 소감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 개인사가 언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꺼리기 때문에 참석자가 줄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언젠가는 중간에 나눔시간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석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나눔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자기도 잊어버렸던 자신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기며 영화포럼 시간이라도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싶어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해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문제죠. 소통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한 마디로 영화 한 편 보려고 영화포럼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

#### ‘마음의 자활’을 연습

이 선생은 영화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셉의원 여러 프로그램들이 환자들의 자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잘 되는 영화포럼은 ‘마음의 자활’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과 우리들의 나눔과 소통이, 함께 하는 모두를 위로하고 마음의 빈 곳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는 ‘사랑의 자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그동안 참석자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까?

“상영되는 영화는 다 좋아해요. 사실 여기 환자들의 지적 수준이 의외로 높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고통, 슬픔 외로움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지 훨씬 진지한 대화가 돼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죠.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망을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 분들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면 무리없이 잘 전달됩니다.”

#### 영화 ‘기생충’에 대한 생각

영화 ‘기생충’이 인기를 얻으면서 모두들 보고 싶어했다.

“기생충을 제가 여러 번 보고 희망을 계획할 수조차 없는 영화의 비극적인 끝부분이 이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수녀님과도 협의해 ‘기생충’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 속 사회계층 관계를 ‘기생 아닌 공생’의 관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과 계획을 나눌 수 있을 거 같아 다음에는 기생충을 볼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다는 이 선생은 20여년 전 예



영화 ‘기생충’의 외국어 포스터. 화제작 ‘기생충’의 끝부분이 쪽방촌 참석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했으나 주제의 시각을 ‘기생에서 공생’으로 바꾸면서 상영을 고려하게 됐다.

수회에서 운영하는 새샘터(약물 청소년 치유공동체)에서 영화피정을 처음 시작했다. 그 뒤 가톨릭대학원에서 문화영성을 공부하고, 외국의 사례 등도 살펴보면서 영화를 문화피정의 한 형태로 다듬었다.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각각 10년 정도 영화피정을 진행했고, 가정폭력 피해공동체, 새터민 청소년공동체, 알코올중독치유센터 등에서도 참석자들의 ‘영화를 통한 마음 다잡기’에 힘을 기울였다.

지금도 매월 네 곳에서 영화피정을 진행하는 그는 “네 군데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요셉의원”이라고 말하고, “제주도에서 온 선생을 대하는 참석자들의 따스함과 사랑이 너무 커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며 특유의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0년 3월~4월)

♥강성필 ♥강승구 ♥강 용 ♥강효선 ♥공현주·이정민 ♥권량희 ♥김만길 ♥김명현 ♥김미애 ♥김바오로 ♥김성덕 ♥김성현  
♥김수미 ♥김수영 ♥김연선 ♥김영식 ♥김은주 ♥김일규 ♥김점순 ♥김정욱 ♥김지영 ♥김태경 ♥김태영 ♥김하영 ♥김홍한  
♥김효준 ♥남광옥 ♥남병철 ♥노영옥 ♥모광수 ♥문세호 ♥민예진 ♥민하·윤하 ♥박기호 ♥박미나 ♥박병식 ♥박수정 ♥박영화  
♥박우현 ♥박찬범 ♥박현정 ♥박혜영 ♥박효주 ♥배다연 ♥배현순 ♥서춘예 ♥서희경 ♥선유경 ♥손길평  
♥손은채 ♥송미경 ♥송정현 ♥양진석 ♥여영미 ♥예 담 ♥우연주 ♥윤혜성 ♥윤혜숙 ♥이경민 ♥이석현 ♥이영석







♥ 이영희 ♥ 이재진 ♥ 이정은 ♥ 이정호 ♥ 이충희 ♥ 이현복 ♥ 이현정 ♥ 이혜진  
♥ 이희숙 ♥ 임병진 ♥ 임성연 ♥ 임진경 ♥ 장윤영 ♥ 장재석 · 장현준 ♥ 전슬이  
♥ 전순상 ♥ 정명화 ♥ 정민하 ♥ 정은희 ♥ 조연진 ♥ 조희진 ♥ 주동현 ♥ 채예나  
♥ 천주교신자 ♥ 최슬기 ♥ 최은희 ♥ 최은희 ♥ 최지운 ♥ 최현진 ♥ 추명관  
♥ 탁경희 ♥ 한상선 ♥ 허원경 ♥ 허지숙 ♥ 홍성숙 ♥ 홍수경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0년 3월~4월)

♥ (주)아모레퍼시픽 ♥ 천주섭리수녀회 ♥ 하늘샘어린이집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0년 3월~4월)

♥ 이레우리밀 : 빵 18상자 ♥ 은혜농원 : 사과 2상자 ♥ 김영애 : 쌀  
100kg ♥ 착한과일 : 바나나 2상자 ♥ 최종옥 : 브로콜리 ♥ 콜라비 2상자 ♥ 맵미림  
: 쌀 100kg ♥ 우리농 : 유정란 50판 ♥ 애덕의 집 : 빵 840개 ♥ (주)리온트레이딩 :  
두유 3상자 ♥ 이용우 : 쌀 10 kg ♥ 가톨릭학원 사제일동 : 과일 2상자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0년 3월~4월)

♥ 김미정 : 옷 1상자 ♥ 김상길 : 운동화 1상자 ♥ 김진숙 : 옷 4상자 ♥ 노미옥 : 옷 1  
상자 ♥ 리빙스페이스 왕실장 : 옷 1상자 ♥ 안덕엽 : 옷 1상자 ♥ 엄승옥 : 옷 1상자  
♥ 윤영숙 : 옷 1상자 ♥ 이승연 : 옷 1상자 ♥ 이영아 : 옷 2상자 ♥ 이종익 : 옷 1상자  
♥ 익명 : 옷 2상자 ♥ 장재 : 옷 1상자 ♥ 조마리노 : 옷 6상자 ♥ 천원교 : 옷 1상자  
♥ 최선희 : 옷 1상자 ♥ 태용구 : 옷 3상자 ♥ 한영숙 : 옷 1상자 ♥ 황은희 : 옷 1상자

###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0년 3월~4월)

♥ 광동제약 : 아모시달 외 2종 ♥ 권희문 : 비타민 ♥ 온누리약국복지회 : 콜드큐 외  
7종 ♥ 우윤정 : 의약품 1상자 ♥ 제일한방 : 한방파프 ♥ 최아름 : 반창고 3상자, 코  
반 15개 ♥ 하나제약 : 글리트 외 21종

###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0년 3월~4월)

♥ HK.wholesale : 비누 2상자 ♥ 구세군 : 마스크 1000장 ♥ 루카스위코 : 손세정  
제 2상자 ♥ 영등포우체국 : 치약 1상자, 주방세제 1상자 ♥ 이용수 : 생필품 1상자  
♥ 익명 : 마스크 6상자 ♥ 하마리아 : 마스크 1상자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새로 나오신 분

- 의사 : 김용민(정형외과)  
의사 : 이주영(내과)
- 약사 : 김설영
- 임상병리사 : 이찬희
- 신학생 현장체험 :  
전주교구 백건우(안토니오)  
서울교구 이재현(사도요한)  
5월 11일~ 7월 10일
- 일반봉사 : 박종환 이경우 황하수

###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 길음 노인복지관
- ♥ 목동의 집
- ♥ 문간
- ♥ 사랑의 집
- ♥ 안산빈센트의원
- ♥ 원죄없으신 마리아의 교육선교수녀회
- ♥ 이현주(어린이집)
- ♥ 쪽방(300가구) 음식 나눔 2회
- ♥ 천주섭리 양로원
- ♥ 토마스의 집
- ♥ 한울타리공동체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0년 3월	583명
2020년 4월	622명



개원 이후 총 진료 인원(2020년 4월 말 현재)

695,929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 루카 4, 18~19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http://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  
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은행에 신청하기** 신분증과 도장·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  
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josephclinic@daum.net](mailto:josephclinic@daum.net)



##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